



역대 최대 1만1300여명 참석

세계일류·비전선보인 “축제 한마당” 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성료

학술·전시·문화행사 참가자 시선 끌어 비좁은 강연장·RF카드제 보완은 과제

역대 학술대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지난 4월 16일(금)~18일(일)까지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를 비롯해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최신지견의 학술강연을 비롯해 최첨단 기자재 전시회, 각종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치과계 대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개원의, 공직, 공보의, 전공의 등 치과의사 1만여명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모두 1만13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한 대회로 기록됐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치과의사(Your Dentist, World Best)'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처음 도입된 'RF카드(바코드)제' 실시로 보수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도 됐다.

관행적으로 학술대회에 등록만 하면 인정해주는 보수교육이 아닌 회원 개인별로 수강한 시간 등이 철저히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제대로 공부하는 학술대회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치과기자재 전시회 역시 국내외 150여개 업체가 참여, 513개 부스 규모로 진행돼 치과용 장비, 재료, 의약품, 구강 위생용품, 의료정보시스템 등 국내 기자재 현황 및 최첨단 기자재 정보가 총망라됐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각 업체 부스마다 관람객들로 가득했으며, 업체들도 제품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전시장 내에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구인·구직 센터'도 운영돼 치과의사 회원들과 취업을 원하는 유휴 치과위생사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며, 아울러 전국 11개 치과대학동창회 부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문화복지위원회, 치과의사문인회, 금연위원회, 스마일재단, 열린치과의사회 등의 부스도 마련돼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졌다.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개회식 및 전야제 행사에서는 인기가수 인순이 씨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열려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18일에는 가족동반 회원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도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편의도 제공됐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과상식 퀴즈대회인 '치과골든벨을 울려라'가 대회 첫 날인 16일에 펼쳐져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코엑스 야외 분수광장에서는 대국민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장외행사도 진행돼 금연과 관련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금연 행사도 펼쳐졌다.

반면 대회 준비와 진행에 대한 일부 과제도 남겼다. 준비비가 추가로 2000석 규모의 강연장을 마련했지만 1만13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듣고 싶은 강연장을 찾기도 들어가지 못한 회원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으며, 대다수 강연장마다 서서 경청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았다. 또 처음 실시된 'RF카드(바코드)제'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강연장과 전시장 간의 동선도 길어 차기대회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News  
& News

## AGD 공식 인정 “탄력 받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59% 지지 얻어... 제도 보완 노력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공식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제도 시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일반의안만 7개에 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AGD 경과조치가 과반수를 훨씬 넘긴 59%의 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오랜 시간 격론 끝에 전국지부에서 상정된 7개 의안 가운데 건의안으로 처리된 2개안을 제외한 'AGD제도 경과조치 전면중단 요구의 건(서울)'과 'AGD 경과규정 폐지의 건(대전)' 등 2개안을 하나로 통합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으로 묶고,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골자로 광주, 부산, 울산지부에서 상정한 3개 안을 통합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으로 묶어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44명 중 59%인 85명이 '수정·보완 지속 시행'을 지지한 반면, 41%인 59명이 '시행 전면중단'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AGD 경과조치의 지속적인 시행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시행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AGD 경과조치를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의안 심의의 시작은 'AGD 경과조치 전면 중단'을 촉구한 서울지부안과 'AGD 경과규정 폐지'를 건의한 대전지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에 대한 찬반토론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57개에 달하는 일반의안 심의와 AGD 경과조치에 대한 논의시간의 효율화를 위해 나머지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에 대한 3개안도 묶어 함께 심의하지는 일부 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됨에 따라 김건일 의장이 의안 심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문단과의 의논을 제안해 표결 끝에 통과,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어 속개된 심의에서 서울 및 대전지부 안을 하나로 통합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과 광주, 부산, 울산지부에서 상정한 3개 안을 통합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으로 분류해 함께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먼저 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분류된 2개안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56.6%)이 많아 이에 대한 장시간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최종 표결,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안이 59%의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인 시행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최종 표결에 앞서 분류된 2개안에 대한 각 대의원들의 지지 발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치대 졸업생들을 위한 AGD제도가 갑자기 경과규정을 마련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며, 더욱이 경과규정도 치협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 및 교육비, 교육시간 등의 책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책정하는 등 AGD제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 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에 AGD 경과조치 시행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이미 1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경과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치협 집행부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원과 의 소통이 일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올바르게 정착해 나가는데 회원들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수구 협회장은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시행 배경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원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AGD 경과조치를 시행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과 최근 열린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도 참석한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경과조치를 포함한 AGD제도에 대해 회원들의 어떠한 제안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